

# “계율 제정 참의미 알려면 빨리 율장을 보라”

### 전재성 회장, 우리말 <빅쿠·빅쿠니비방가> 펴내

불교에서는 승려가 오신채(五辛菜) 중 하나인 마늘을 먹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부처님 당시 언어인 팔리어로 된 계율에는 비구와 비구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 승단에 한 농부가 밭에서 나는 마늘을 보시했다. 농부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이 마늘 밭에 있는 마늘을 모조리 가져갔다. 이에 부처님께서 농부가 수확할 마늘이 없으니 마늘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또 하루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위해 법회를 열었다. 법회 한 쪽에서 입안에 마늘을 씹고 있는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 마늘 향기에 대중들이 설법에 집중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마늘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두 일화는 각기 보시받은 물품을 과도히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과 법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대중들을 배려하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율에는 비구와 비구니는 모두 마늘을 먹지 말라는 짧은 내용으로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오롯이 담은 팔리어 율장이 최초로 완전 복원 번역됐다.

전재성 한국불교학연구소 회장은 7월 7일 종로 인사동에서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

회를 갖고 <빅쿠 비방가-율장 비구계>와 <빅쿠니 비방가-율장 비구니계> 등 2권의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부처님 당시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 2백 27가지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3백 11가지를 한글로 번역돼 담겼다. 전재성 회장은 지난 2014년 팔리어 율장 1권 <마하박가-율장대품>과 2권 <쥘라박가-율장소품>을 펴내며 이어 1년간의 작업으로 팔리어 율장을 완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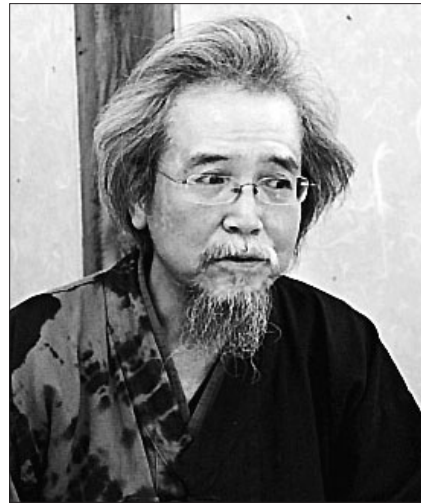
### 부처님 상황따른 개차법 전해

### 현대 율장 오해 소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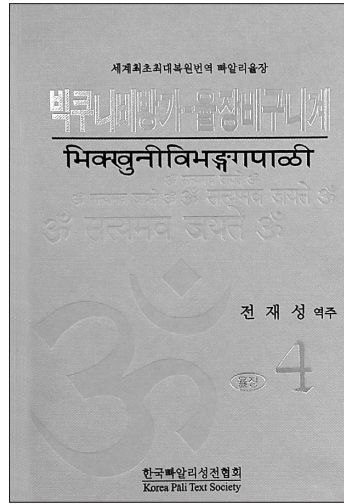
### “계율, 2500년 승단유지 큰 역할”

전 회장은 “팔리어 율장은 엄격성뿐 아니라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 불교 승단이 2천 500년 넘게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에 따르면 계율에는 상황에 맞는 유연성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 한 마을에는 아이들이 남아 출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승려들이 수



전재성 회장은 팔리어 율장 번역본 출간에 대해 부처님 당시 율법이 나오게 된 전후과정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전 회장 펴낸 <빅쿠니비방가>.



행과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부처님은 15세 미만 아이는 출가를 금지하는 계율을 남겼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 함께 ‘까마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챙길 수 있는 아이들이 출가를 허락했다.

전 회장은 계율은 딱딱한 규칙이 아닌 상황에 맞춰 발전했다고 말한다. 처벌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계율에서 초범인 경우 심각한 중대 범죄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로 처리하도록 했고, 스스로 죄를 크게 누우더라도 무죄로

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회장은 “계율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팔리어 율장은 인류 최고의 민주적 헌법이라 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현대 불교계에서의 율법은 너무 어렵기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 계율이 아닌 사회법에 기반한 종법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이들이 팔리어 율장을 읽고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故김상현교수 추모 국제석학 강연회 열린다

### 7월 28일 이시이 코세이·노르웨이 박노자 박사 등 나서

불교사학계를 이끌었던 김상현 교수(사진)를 추모하는 국제석학 초청 강연회가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7월 28일 개최된다. 김상현 교수는 2013년 2월에 동국대 사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 해 7월에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당시 김상현 교수의 갑작스런 죽음에 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은 추모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학술대회와 추모강연회 및 유고집·논문집의 출판을 계획한 바 있다.

초청 강연회에는 일본 고마자야(駒澤) 대학의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 교수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가 참여한다.

이시이 교수는 ‘신라 화엄종에 있어서 악(惡)의 문제 - <화엄경문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화엄경문답>은 1985년 이시이 교수가 중국 법정의 저술이 아니라 신라 의상의 저술이라고 주장했고, 김상현 교수가 이시이 교수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한일 간 학계 교류의 물꼬를 튼 주제다. 김상현 교수는 타계 직전인 2013년 5월 번역서인 <교감 화엄경문



답>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이시이 교수의 강연은 그러한 김상현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신라 화엄종의 악(惡)에 대한 관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노자 교수는 ‘만해불교, 그리고 화엄학’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김상현 교수의 스승이었던 효당 최범술 스님과 함께 불교계의 독립운동단체였던 만당(萬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김상현 교수도 만해 한용운을 추모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02년에는 ‘조선청년에게 고향’이라는 만해 한용운의 어록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박노자 교수의 강연은 그러한 김상현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만해 한용운의 화엄사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노덕현 기자

## “불교, 기업경영철학의 기반 제공해야”

### 윤희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학연구회 워크샵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는 자본주의 흐름 상 피할 수 없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해석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윤희화 성균관대 교수(사진)는 7월 10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2015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샵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불교와 기업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유 교수는 불교와 기업의 상호소통이 필요하며 이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 중생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업은 중생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취업, 고용, 실직 등을 비롯해 기업내 경쟁과 활동은 보람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업경영의 본질은 의사결정이며 여기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노사관계의 기본은 사측은 근로자의 수고로움



을 이해하고 임금과 휴가와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회사를 명예롭게 하고 정성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사측은 기업 철학을 먼저 모든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불교계 기업경영철학의 기반사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경영에서 불교의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템플스테이 또는 명상강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불교계의 불교적 경영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 아뢰야식은 DNA로 볼 수 있는가?

### 불교평론, 7월 열린 논단서 ‘생명과학과 불교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열린논단 7월 모임이 7월 16일 서울 인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DNA와 아뢰야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린논단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논사로 나선다.

유식에서 8식인 아뢰야식은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식으로 장식(藏識)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생명의 근원인 DNA와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불교학계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다.

우희종 교수는 이러한 연구에 반해 DNA가 제7식인 말라식과 가깝다고 밝힌다. 말라식은 심층의 자아의식으로 제6식

인 의식의 발현에 개입한다. 우희종 교수가 주관하는 열린논단 7월 모임이 7월 16일 서울 인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DNA와 아뢰야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린논단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논사로 나선다.

우희종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이에 관한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교평론 측은 “성급한 추론이지만 ‘DNA와 아뢰야식은 유사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부를 더 깊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 세종 우수도서 불서 4종... 1400곳 배포

### 2015년 선정결과, 총류 1종, 종교 2종, 역사 1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6월 26일 선정 발표한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에 불교관련 도서가 총 4종이 포함됐다.

세종도서는 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판 출간된 3851종의 도서 중 10개 분야 320종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도서는 종당 1000만원 이내 도서가 구입돼 전국 공공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1400여 곳에 배포된다.

우수도서에 선정된 불교관련 도서는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유부현, 시간의물레)(총류분야)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정준영 외 7인, 도서출판 운주사)(종교분야)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김광식, 도서출판 선인)(종교분야) △<삼국유사 1~3>, (일연·최광식·박대재, 고려대학교출판부)(역사·지리·관광 1종) 등 4종이다.

노덕현 기자

## <불교미술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 통도사 지속운영 결실, 2013년 불교학계 우수 학술지로도 꼽혀

양산 통도사가 운영하는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의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이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

<불교미술사학>은 2001년 불교미술사학회 설립과 함께 창간됐으며 최근 19호까지 발간했다. 통도사 <불교미술사학>은 201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심사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불교학계 최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 16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불교미술사학회는 통도사성보박물관의 학예연구사들을 비롯한 경남지역 소장 학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학회로 지역 문화와 불교미술 연구를 담당해왔다. 현재 통도사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총 25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년 2차례(4월, 10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등재 심사



평을 통해 “불교미술사학 학술지가 다양한 시각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과 학술적 가치와 차별성이 뛰어난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불교미술사학회는 많은 학생을 배출한 통도사의 가치를 있는 중요한 학회”라며 “이번 등재지 선정은 계기로 지역 및 불교문화 연구에 위상을 떨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신심명(信心銘)을 펴낸 깨달음의 노래

불기 2540년 324년 1월 22일 0000년

## 이 시대의 선승, 혜국 스님 최초의 저서

### 선방수좌들이 극찬한 책! 수행과 체험으로 강렬한 깨달음의 언어!

종교 베스트

매일 새벽에 직접 불편을 꼭꼭 눌러 써 연재한 것을 다시 수정해 책으로 냈다. 그만큼 그에게 각별한 책이다. - 조선일보

공부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1400년 전의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충실하게 담고 있다. - 한국경제

공부와 체험을 바탕으로 풍부하게 해설함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한다. - 세계일보



夢幻空華 何勞把握 몽환공화 허로파착

꿈속의 허깨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남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며 내 자신을 던져버리거나, 가슴에 상처로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꿈도 그렇고,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사로잡혀 아파하고 있는 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그냥 놓아 버리면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기억일 뿐이요, 미래란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 본문 중에서

